



한국어나운서클럽회보

2011년
9월 15일
제 3 호

• 발행인 : 김동건
• 편집장 : 황인우
• 주 소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6 포스코더샵 1304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어나운서클럽 E-mail annaclub7@naver.com ☎ 02-784-5040 / 070-7501-3842

네이버와 한국어사전 발음 콘텐츠 재능 나눔 12월 2일 '한국어나운서대회' 에서 만나요!

올 한글날부터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발음 제공

7개 방송사 20명의 현역 아나운서들이 재능 나눔과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함께 국어사전 발음 콘텐츠를 제작했다.

MBC 박소현, SBS 김소원, CBS 김은영, OBS 최지혜, tbs 정연주, febc 김성운, PBC 김현주 등 여성 아나운서 20명(명단 아래)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일과 중에 번갈아가며 시간을 내어, 표준국어대사전의 51만 개 단어 중 활용 빈도수가 높은 10만 개 단어의 정확한 발음을 국립국어원 연구원이 참관한 가운데 녹음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SBS 이병희 아나운서는 "많게는 일주일에 세 번, 15회 총 25시간을 녹음했는데, 하루 평균 2시간에 2,300개 단어를 소화한 셈이다. 뻑뻑한 단어들을 읽어 내려가다 눈이 침침해져 오독을 하거나 목이 잠겨 중간에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들이켜기도 했다. 특히 '총집결되다' 같은 단어의 경우, 허용되는 두 가지 발음을 [총:집결되다]와 [총:집결뒀다]로 변별력 있게 소리 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역 아나운서 20명 참여
2개월간 사용빈도 높은 10만 단어 녹음 봉사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다
국립국어원 연구원 참관하에 녹음 작업

OBS 최지혜 아나운서(사진)는 초심으로 돌아가 훈련하는 심정으로 녹음하며 많이 배웠고, 우리말에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과 저작권 협약을 맺고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네이버 국어사전 발음 콘텐츠의 저작권은 한국어나운서연합회와 네이



우리말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OBS 최지혜 아나운서

버가 공동으로 보유하며, 10월 9일 한글날부터 네이버 국어사전 방문자들에게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발음을 들려주게 된다.

한편 발음 듣기 서비스는 웹스터나 야후, 네이버 인터넷 영어사전에서 시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국어원이 국내 최초로 2005년 11월 28일부터 홈페이지 표준국어대사전(www.korean.go.kr)에 남녀 성우들의 목소리로 제공하고 있다.

참여 아나운서: MBC 박소현, 류수민, SBS 김소원, 이현경, 이병희, 최혜림, CBS 김은영, 김용신, 김필원, OBS 최지혜, 강미정, 김원경, febc 김성운, 장영희, 한경은, PBC 김현주, 김부궁, 김수영, tbs 정연주, 송정애

8월 정례 모임, 김동건 회장, 맹관영, 양창석 등 36명 참석

(사)한국어나운서클럽 정례 모임이 8월 3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여의도 <열린>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황우겸, 배덕환, 채영신, 박영웅, 맹관영, 김규홍, 이형균, 이혜옥, 박민정, 황인우, 전영우, 박종세, 이계진, 김상준, 차인태, 양창석, 정연호, 이장춘, 이재용, 김대호, 오승훈, 김초롱, 김태욱, 손범규, 김민지, 박광범, 이윤아, 이병혜, 황량, 박용호, 김동건, 이은정, 이후재, 성기영, 전우벽, 정미홍(입장 순, 호칭 생략) 등 36명이 참석했다.

김동건 회장은 "건재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 기쁘다. 한글날도 다가오는데, 클럽 회보를 보시고 지적과 충고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했고, 박민정 사무총장은 클럽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한 정



왼쪽부터 정연호, 이병혜, 이후재, 전우벽, 성기영 회원

관 개정에 관해 언급했다. 특히 방우회 이장춘 이사와 3명의 MBC 신입사원들이 참석해 큰 박수를 받았고, 아나운서연합회 손범규 회장이 바로 출간된 <아나운서저널> 9월호를, 차인연합회 사무국장인 전우벽 회원이 차인 협회 발행 <차인(茶人)> 7·8월호를 가져와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연말 모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2월 2일(금) 오후 7시부터 목동 현대백화점 7층 토파즈홀에서 열리게 될 '2011한국어나운서대회'로 대신한다.

MBC 신입사원 3명에 큰 박수
건강과 근황 물으며 이야기꽃 피워

대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의 숨은 주역 - 조직위 미디어국장 손상진 회원

아나운서로 입사한 스포츠 PD, 7회 연속 올림픽 방송 제작한 관록



88올림픽, 2002월드컵,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직접 경험

대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경기국장을 거쳐 미디어국장을 맡았던 손상진(전 KBS) 회원이 주목을 받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202개국, 1,945명이 참가, 대회 조직 및 경기 운영은 물론 누적 관중이 45만 명에 달해 세계 언론과 육상 관계자들로부터 성공한 대회라는 찬사를 받은 것.

손 회원은 "우리나라가 육상강국이 아닌 만큼 관심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제 신호를 제작해 송출하는 것부터 동시에 9개까지 펼쳐지는 많은

경기를 전광판에 선별해 보내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지만 트랙에 표영준(KBS), 필드에 유수호(전 KBS), 그리고 KBSN 스포츠캐스터 등 선후배 아나운서들이 잘 해준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라고 겸손해했다.

1976년 KBS 공채 3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손상진 회원은 1982년 스포츠 PD로 전직해 2008년 퇴직할 때까지 국내 최초로 7회 연속 올림픽 방송을 제작한 바 있다. 이로써 손 회원은 자신의 경력에 88올림픽, 2002월드컵,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국내에서 치러진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를 직접 경험한 기록을 추가하게 되었다.

아나운서클럽 법인 운영 실태 실사

방통위, 클럽 사무실 방문 점검 후 양호 판정

(사)한국어나운서클럽이 8월 3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인 운영 실태에 관한 실사를 받았다.

방통위 소속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주무관 등 담당자가 사무실을 방문·점검해 실사한 자리에서 한국어나운서클럽의 법인 운영 실태가 양호하다는 평을 받았다.

항일 단파방송 연락운동 물망비 기념식

방우회 주관, 9월 30일 KBS 본관서 개최

'항일 단파방송 해내의 연락운동' 물망비(勿忘碑) 기념식이 (사)한국방송인동우회(이하 방우회) 주관으로 9월 30일 오후 2시 KBS 본관 서남 측 입구에서 열린다.

항일 단파방송 해내의 연락운동의 실상은 이렇다.

일제강점기 때 양제현 아나운서, 아동문학가 출신 방송작가 송남현,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 홍익범 등이 해외 단파방송을 청취하고 송진우, 김병로, 이인 등 국내외 애국지사들과 연락하며 독립운

그 가운데 양제현, 박용신, 송진근, 손정봉 아나운서 등과 독립운동가 허헌, 송남현 등 7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경성

방송국 개성송신소 소장 이이덕, 보수파에 근무하던 기술자 이근창과 김모(某), 전 동아일보 기자 홍익범, 전 조선일보 영업국장 문석준, 의사 경기현 등 6명이 옥사했다.

방우회는 1991년 9월 9일 항일 단파방송 해내의 연락운동의 큰 뜻을 잊지말자는 의미에서 물망비를 세우고 '그 어느 누구도 자



'누구도 귀를 막을 수 없다' 최만린 고문이 설계·제작한 물망비

양제현 아나운서와 독립운동가 허헌 등 78명 실형, 6명 옥사

등을 하자 이를 눈치 챈 일제가 1942년 12월부터 1943년에 걸쳐 150여 명의 방송인을 비롯해 350명을 구금하기에 이른다.

유민의 귀를 막을 수 없다는 진리를 물망코저 합니다.'라는 글을 새겨넣어 해마다 선각자들의 애국심을 기리고 있다.

제48회 '방송의 날' 특집

방송의 날 축하연과 방송대상 시상식

축하연에 한국아나운서클럽 20여 명의 회원도 함께해

- 대상-EBS 다큐멘터리 정성욱 연출 <학교란 무엇인가>
- 문화예술(라디오)- KBS <신성원의 문화 읽기>
- 시사보도제작(라디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 사회공익-범효춘 회원 진행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 아나운서상-SBS 정미선



방송협회 김인규 회장과 이정옥 사무총장, 김규홍 아나운서클럽 부회장, 지중학 전 SkyKBS 사장



아나운서클럽 박민정 사무총장, 강영숙 고문, 황인우 편집장, 채영신 회원



아나운서클럽 한상권 아나운서(KBS), 지승현, 이종태 회원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48회 방송의 날 축하연>이 김황식 국무총리, 박희태 국회의장과 김인규 방송협회장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한상권(KBS) 아나운서가 진행한 축하연에는 강영숙, 김규홍, 김성호, 김인숙, 민병연, 박민정, 변용진, 안용민, 윤영중, 이병혜, 이세진, 이연영, 이종태, 지승현, 채영신, 홍기욱, 홍승택, 황량, 황인용, 황인우(가나다 순) 등과 febc 공부영, KBS 김성수 아나운서, tbs 이은정 심의실장 등 (사)한국아나운서클럽 회원들도 함께했다.

다음날인 9월 2일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이 KBS홀에서 열려 EBS의 10부작 다큐멘터리 <학교란 무엇인가>의 정성욱 PD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48회 한국방송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문화예술(라디오) 부문 KBS <신성원의 문화 읽기>, 어린이청소년(TV) KBS <TV유치원 파니파니-해바바 또나의 글자놀이>, 시사보도제작(라디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한일강제병합 100년 특집 '새로운 백년을 묻는다'>, 사회공익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전 KBS, 범효춘 회원 진행) 등이 선정됐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아나운서상에 SBS 정미선을 비롯해 TV진행자상에 서강대 왕상한 교수(KBS 변우영 아나운서의 부군), 성우내레이션상은 CBS 추천으로 서혜정이 받는 등 24개 부문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칼럼

'아나운서 정신' 사라져 간다



김성호
· 광운대
정보콘텐츠대학원장
· 1970년 KBS 아나운서
입사, 편성국 PD
· KBSi 사장 역임

만당(晩堂), 현암(玄庵) 등으로 아호를 지어주는 선비의 길도 보여줬다. 따라서 이 선배들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 정정(淸澄)의 자태를 숭선수범하여 실천했다.

이제 방송 세상이 달라져 전문화, 세분화가 된 마당에 옛 그대로를 고집하거나 향수에 목매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요즘 방송계를 보면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해(가)야 하나!" 하는, 펍 염려스럽고도 아찔한 상황을 연출한다. 선배들은 박봉에도 직업을 빙자하지 않았으며 혹독한 일제하에서도 모국어 교사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요즘 아나운서 중에는 기자 출신 앵커보다 못한 발음 장애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방송인 가운데 아나운서란 '격조 있는 상식'으로서는 대중들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 이어야 한다.

"한국방송의 역사는 절반이 아나운서의 역사다." 필자가 방송80주년(2007년)에 어느 전문지에 쓴 이 메시지는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방송사(韓國放送史)가 논증하는 사실(fact)이다. 아나운서는 1940년대 중반부터 50년대 초반까지 방송직종 중 유일한 분야였다. 또한 아나운서는 1927년 방송 개시부터 치열한 공채 제도로 선발되었다. 더불어 아나운서는 오랫동안 방송의 중심축이었으며, 자긍심 또한 대단했다. 그리하여 아나운서에게는 1930년대부터 '아나운서 정신'이라는 숭고함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일제강점기 시대 김영팔, 이석훈 등은 작가였으며 이해구, 이계원 등은 선비였다. 제3대 방송과장 심우섭(심훈의 맏형)은 이 정신을 심어준 사람 중 한 분이었다. 그는 이해구나 이계원 등에게 아나운서의 국어사랑, 선비정신, 호연지기, 주도(酒道), 자긍심 등을 각인시켰다. 그는

국어사랑, 선비정신은 아나운서의 전통

그 지고한 공동체의 문화가 무너지고 그 정신이 사라져 간다. 아나운서들이 너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것이 한두 가지뿐이겠는가만, 가혹한 시대에도 선배들이 쌓아올린 '아나운서 정신'을 이 좋은 세상에 사는 후배들이 버리는 것은 큰 죄악이다. 「아나운서 정신」, 더 잃기 전에, 다 잃기 전에 아나운서클럽, 아나운서연합회가 함께, 더불어 지켜가길 희망한다.

특별기고 이장춘

한가족 같은 아나운서



이장춘
· 한국방송동우회 이사
· 춘추추동 방송 블로그 운영자
· 1963~1998년까지
KBS 기자, PD
· 전산정보실장,
업무국장, 관재국장,
제주방송국장 역임

방송국 생활 36년에 아나운서는 해본 적이 없지만 아나운서라면 한 가족처럼 다정한 마음으로 다가온다. 방송국에서 늘 가까이 지내왔던 것도 원인이지만, 방우회나 KBS 사우회 활동 중 춘추추동 방송 블로그(<http://blog.daum.net/jc21th>)를 열고 지난날의 각 방송사 아나운서 실 이야기를 올리면서 그 인연이 더 넓고 깊어졌다.

특히 아나운서 출신 방송기자 1호 문재안 선배님을 비롯해 황우경, 임택근, 전웅덕, 최계환, 전영우, 강영숙, 최만린, 박종세 선배님들과 해외에 계시는 호기수, 위진록, 유덕훈, 이광재님. 그리고 이미 세상 인기 블로거, 방송사료 옥경, 마현경, 김영팔, 박충근, 이해구, 이하운, 이석훈, 최아지, 김문경, 이계원, 송진근, 양제현, 이현, 박용신, 송영호 민재호, 윤길구, 이덕근, 윤용노, 전인국, 서명석, 홍양보, 장기범, 강찬선, 최세훈 선배님 등 지면 관계상 다 거명할 수는 없지만, 필자 자신도 잘 몰랐던 선배님들은 물론 최초의 여성 아나운서 이옥경 님의 딸 노라노 여사 등 가족·친지들까지 뜨거운 성원과 함께 생생한 자료를 보내주셔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덕분에 춘추추동 방송 블로그가 방

송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고회가 지난 이 시점에서 큰 보람으로 여긴다. 이역만리에서 들려오는 아나운서의 중계방송을 듣노라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저절로 애국심이 솟아오른다

고 하던 청취자들의 반응이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머릿속을 스쳐간다. 아나운서는 예나 지금이나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아왔음을 잘 알고 있다.

지난 2월 아나운서클럽회보 발간 소식을 듣는 순간 그토록 기쁠 수가 없었다. 1호, 2호를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몇 번이고 읽고 또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 3호를 기다리고 있다.

아나운서와 맺은 인연, 방송사에서 아나운서의 위상이나 역할,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점 등 남은 이야기는 블로그에 있음을 첨언한다.

...» ...» ...» SBS ...»

감당하기 어려운 큰 상에 고개가 숙여져

신뢰감, 친밀감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진행

정미선 아나운서는 '2011방송대상'의 아나운서상 수상자로 선정된 후 경력도 짧고 실력이 부족하기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고 앞으로 더욱 진심을 다해 방송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2003년에 SBS 입사, 올 봄 출산휴가 전까지 SBS TV <출발! 모닝와이드 3부>를 진행하며

2008년부터 거액 기부

희귀 난치병 아동 돕기에 앞장서

선한 인상으로 프로그램에 온기를 불어넣어 준 정미선 아나운서(사진).

정 아나운서는 2008년 9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의 MC를 맡아 실의에 빠진 환자 가족을 대변하고 자

원봉사 참여 및 ARS 후원금 모금 등 시청자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08년 7월부터 '월드비전'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4,000만 원을 기부하며 희귀 난치병 아동 돕기에도 앞장서왔다.

정미선 아나운서는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준다면 어려운 이웃의 행복과 희망은 더 커질 것이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초대석 제3대 회장 전영우 고문

공부하는 아나운서, 준비하는 아나운서

뉴스는 언어 리사이틀, 정확한 발음으로 아름답게 연주해야

“전영우 고문님 초대석은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박사인 김은성 씨가 맡아주세요.” 편집진의 말을 들었을 때 ‘화법의 대가’인 선배님을 만나다니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유난히 더운 여름날 오후 신사동 가로수길 자택으로 대선배님을 찾아뵈었다. 선배님의 모습에서는 열정으로 채워진 ‘아나운서 30년, 대학교수 28년의 삶’이 오롯이 묻어 나왔다. 전영우 선배님(1934년 서울 출생)은 1954년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입사, 동아방송국(DBS) 부국장, KBS 아나운서 실장과 교양제작 팀장을 지낸 후 1983년에 교수로 임용되어 2010년까지 수원대에서 후학을 양성하셨다. 올 가을 학기에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출강해 ‘화법과 예절’을 가르치고, 가톨릭대학 신학대학에서 ‘국어 발음과 음성 표현법’에 대해 특강하는 등 아직도 강단에 서신다. 또한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를 발족해 바른말을 전파하는 한편, 방우회 부회장, 동아일보사 우회 부회장, 성균관 의전 담당 전의, 한국어아나운서클럽 4대 회장을 거쳐 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현역 시절보다 더 바쁘게 지내신다고 한다. 그 비결을 여쭙어 보니 아나운서, 학자로서 사명감을 잊지 않은 덕분이라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어르신들 중에는 전영우 아나운서의 정오뉴스를 ‘라디오 뉴스의 전형’으로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다. “뉴스는 읽는 것이 아니라 리사이틀(Recital)입니다. 단순히 글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 연주하는 것처럼 라디오 뉴스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음입니다.” 선배님은 명확한 발음의 기준을 세우고 자 방송활동을 하며 대학원에 진학해, 1967년 국문학, 1989년에 국어학까지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아울러 1962년 <화술의 지식>을 출간한 이래 그동안 <스피치 개론>, <교양인의 화법>, <고등학교 화법> 등 25권의 책을 쓰셨다. 2009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을 <설득의 변론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데 이어, 플라톤의 <다이알로그(대화)> 중 <고르기아스>편을 번역한 <스피치 철학> 상권을 올 추석 즈음에 발행하고, 화법 연구의 마침표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권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시다. “아나운서 생활을 하며 거의 매일 부딪치는 문제가 우리말 발음이에요. 우

리는 늘 말하고 있지만 얼마나 정확히 말하고 있는지 반성해봐야 합니다. 말의 기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발성과 발음이라고 봅니다. 미국 중고등학교와 대학의 영어과 교육 내용 중 중심은 스피킹(speaking)입니다. 화법 책에서 발음에 관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음을 무시하면 소통에 무리를 가져 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영우 선배님은 1962년 5,000 표제어로 최초의 한국어 발음사전을 선보였고, 2001년 오랜 노력 끝에 65,000 표제어의 <표준한국어발음사전> 증보판을 펴냈다. 증보판은 문화부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었으며 지금도 발음사전의 모범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 선배님은 추구중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다.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도 캐스터 입장에서는 질 좋은 중계를 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스포츠 잡지와 신문을 섭렵했죠. 그것을 바탕으로 좋은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뉴스와 추구에 이어 관심을 가진 것이 토크쇼였지요.” 또한 잊지 못할 프로그램으로 KBS 시



전 고문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택 근처 도산공원에서 매일 산책과 체조를 하며 건강을 다지고 있다.

확실한 목표, 철저한 준비로 ‘화법의 대가’란 명성 얻어

사명감으로 해온 아나운서 30년, 교수 28년

62년 최초의 한국어 발음사전, 스피치개론 등 저서 무려 25권

스의 <레토릭>을 <설득의 변론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데 이어, 플라톤의 <다이알로그(대화)> 중 <고르기아스>편을 번역한 <스피치 철학> 상권을 올 추석 즈음에 발행하고, 화법 연구의 마침표가 될 것을 기대하며 하권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시다. “아나운서 생활을 하며 거의 매일 부딪치는 문제가 우리말 발음이에요. 우

절 진행했던 <만능 스테이지>, <비밀의 문>, <재치문답>, <가정오락회>와 DBS의 <유쾌한 응접실>을 꼽은 전영우 선배님은 그래도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것은 라디오 뉴스라고 강조하셨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쭙자 대답은 역시 두 가지였다. “확실한 목표와 준비!” 선배님 스스로 확실한 목표를 갖고 철저히 준비하며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셨다. 그러한 시도가 참으로 대단한 일임을 잘 알고 있기에 후배로서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이었다. 인터뷰 내내 ‘공부하는 아나운서, 준비하는 아나운서’라는 제목이 떠올랐고, 그것이 바로 아나운서가 나아갈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 KBS 김은성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한국여성아나운서클럽

우리 친동기간이나 마찬가지로!

방송국 떠나서도 45년째 이어진 친정 같은 모임



뒷줄 왼쪽부터 이연영, 박민정, 이현숙, 민병연, 윤영중, 문복순, 이정희, 김윤희, 김인숙, 김경숙



1958년 남산으로 이사간 후 아나운서실에서. 김현수, 최계환, 서선벽, 전영우, 장금자, 박중세, 윤영중, 이현숙, 강찬선, 송영필, 김경숙

매달 22일이면 어김없이 서울 압구정동의 한정식집에 모이는 KBS 원로 여성 아나운서들. ‘한국여자아나운서클럽’ 회원들은 친정집에 온 것 같다고 입을 모은다. 45년 전, 1966년부터 시작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방송사 퇴직 후 두세 명에서 만 나던 것이 한동안 직종을 망라한 여성 방송인들의 모임으로 확대되었다가, 지금은 김인숙(52년 입사), 장금자(53년), 윤영중(54년), 문복순(57년), 민병연(57년), 이현숙(57년), 김경숙(59년), 이연영(61년), 이정희(61년), 김윤희(62년) 등 10명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 곱게 차려입고 자고저(字高低)를 지키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회원들의 모습이 귀여운 귀부인(?) 같다고나 할까? 지성을 겸비

한 최고의 인기 직업인으로 활약했던 인생의 황금기를 소중히 기억하며, 아직도 방송 핑크로 사표 쓰는 꿈을 꾸는 영원한 아나운서들. 국회의원선거 개표 실황, 대천해수욕장 공개방송, <추억의 멜로디> 프로그램 등을 거론할 때 회원들의 얼굴은 창밖에서 보내는 학생 팬들의 환호에 행복해하던 20대로 돌아가 있었다. 5, 60년대에 활동했던 회원들의 이야기는 <어린이시간> 진행과 음악 프로그램 곡목 소개에 머물던 ‘여성 아나운서들의 방송활동 개척사’라 할 수 있다. 어린이 노래 자랑 공개방송 <무엇일까요>를 진행하던 남성 아나운서가 어린 출연자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자 윤길구 실장이 강영숙, 김인숙 아나운서를 투입하게 됨으로써 <누가누

가 잘하나>까지 여성 아나운서도 당당히 공개방송의 진행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이야기 등 여성 아나운서들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던 당시의 상황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 1954년 서울 운동장에서 열린 어린이날 중계방송 보조로 앉아 있다가 남자 선배가 지각해 즉석에서 의식 중계를 한 후 걱정하며 아나운서실에 들어서자 박수가 쏟아졌다는 김인숙 회원의 회고담. 어린이 공개 방송에 여성 아나운서 투입하면서 활동영역 넓어져 아직도 ‘방송핑크로 사표쓰는 꿈’ 꾸는 영원한 아나운서들 1958년 ‘전쟁을 겪은 서울에 전문직 여성 아나운서가 있다.’라는 <뉴스위크> 인터뷰 기사의 주인공인 문복순 회원은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명동성당 미사를 중계했

다고, 이렇듯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여성 아나운서가 뉴스와 스포츠 중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프로그램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초창기 여성 아나운서들은 혼기도 늦춘 채 일에 열중하다가 사내에서 연분을 만나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고, 퇴직 후에도 명망 있는 음악가, 방송작가, 외교관, 공인회계사, 치과의사, 목사의 아내로서 남편을 내조하며 자아성취도 해냈다. 김인숙 회원은 자신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를 비롯해 방송과 영화 심의위원, 육군본부 정책 심의, 검찰청 항고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아나운서였다는 자부심과 현직 아나운서들이 잘해준 덕분이라며 후배들에게도 공을 돌렸다. 지금은 송파문화원 부원장인 김윤희 회장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데, 돌아가며 1년씩 회장을 맡아 모임과 여행으로 친목을 다지고, 국제아동권리기관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도 보낸다. 긍정적 사고를 가져 대화가 잘 통하는 데다, 선배는 후배를 사랑하고 또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기에 친자매처럼 지낼 수 있었다는 ‘한국여자아나운서클럽’ 회원들.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모임이 아나운서라는 끈끈한 정을 이어줄 소중한 나침반으로서 오랫동안 지속되길 기원한다. 글/ 황인우 편집장, 박민정 편집위원

Slow age life를 목표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체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연의 진실'



그녀들의 건강수다 “발효의 진실을 말합니다” Slow Age Life 이든네이처

인류의 건강을 위해 신이 주신 자연의 섭리, 발효에 대해 아시나요?
면역증대와 노화방지는 물론 체내 독소배출과 해독작용, 그리고 풍부한 효소 작용으로 소화기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요소입니다.
작은 유기체들의 생명활동이 고스란히 담긴 발효는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당신의 몸을 채워보세요!

“자연에서 천천히 행복하게 나이드는 법을 배웁니다”
김혜영 (MBC라디오 싱글벙글쇼 MC)

“당신의 몸에 자연을 채워주세요
우리도 자연이 되어갑니다”
이숙영 (SBS 라디오 이숙영의 파워FM MC)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기업
사람을 위한 기업
이든네이처와 함께하세요”
정미정 (전:KBS 아나운서, 현:이든네이처 창업CEO)



세계최초 발효 생식환 개발
“발효건강 전문기업 이든네이처”





38기 신입 아나운서 5명 선발

신입 아나운서 5명(남자 2명, 여자 3명)이 8월 1일자로 임용되었다. 한상현, 조충현, 정지원, 김민정, 이슬기 등 신입 아나

운서들은 8월 KBS 연수원의 기본 연수에 이어 9월에는 아나운서실에서 직무 관련 연수를 받고 있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시행

KBS 아나운서실은 올해 100개 학교를 목표로 문화관광부와 함께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월 한 달만 해도 40개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바른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방송 출연자 대상 한국어 공개강좌 실시

KBS 방송언어를 표준 한국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실시하는 한국어 공개강좌가 7월 12일, 13일 이틀간 아나운서 교육장에서 열렸다.

기자, PD, 리포터, 기상캐스터, 방송 출연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방송언어 오용사례, 틀리기 쉬운 표현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1급 시각장애인 앵커 이창훈 발탁

7월 25일 1급 시각장애인 이창훈(27세) 씨가 장애인 앵커로 위촉되었다. 뇌수막염 후유증으로 생후 7개월에 시력을 잃은 이 앵커는 3

개월의 실무교육 후 정규 뉴스에 투입되어 1년 계약의 프리랜서로 일하게 된다. KBS는 매년 장애인 앵커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개 오디션으로 3명의 아나운서 탄생

〈신입사원〉 프로그램을 통해 3명의 아나운서가 탄생했다. KAIST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오승훈(30세, 왼쪽), 홍익대 경영학 전공 김대호(28세, 오른쪽), 이화여대에서 환경디자인을 전공한 김초롱(27세) 등 신입 아나운서들은 7월에 중국 연수를 다녀온 후 집중적으로 뉴스 훈련을 받고 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 돕기 직업 체험

다문화가정 어린이 500명과 각국 대사들과 함께 어린이 직업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열린 '키자니아 데이'에 참여했다.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체험을 도우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낸 MBC 아나운서들은 앞으로 사회 공헌, 나눔의 자리에 더 많이 동참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경기도로 확대

2007년부터 국립국어원과 함께 실시한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 사업 영역이 경기도로 확대되었다. 김환 아나운서가 7월 8일 인천 부원여중, 유경미 아나운서가 7월 13일 부천 내동중학교에서 강의하는 등 올해 서울과 경기도에서 총 10회의 방문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병희 아나운서 복지관 개관식 사회로 재능기부

이병희 아나운서가 7월 19일, 푸르메재단이 설립한 과천장애인복지관의 개관식 사회를 맡아 재능 기부에 나섰다.

아나운서팀은 앞으로도 사회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재능기부를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8월부터 서울 전역까지 시청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OBS의 서울 역외 재송신을 승인함에 따라 8월부터 경기, 인천은 물론 서울에서도 OBS 시청이 가능해졌다.

유형서, 김원경 아나운서가 8월 1일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 생방송 〈서울 어디서나 yes! obs〉의 MC를 맡아 OBS를 소개했다.(사진)

또한 경력 공채를 통해 강승화 아나운서와 김소영 아나운서가 OBS의 새 식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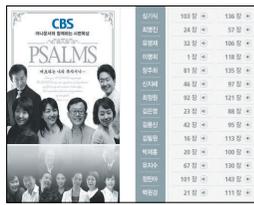


박재홍 아나운서 미 하버드대 행정학석사(MPA) 학위 취득



입사 9년 차인 박재홍 아나운서가 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석사(MPA) 학위를 따고 7월에 돌아왔다. TV뉴스 메인 앵커와 라디오 〈8585 퀴즈쇼〉를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29명 아나운서 신·구약 성경 완전 녹음 스마트폰 용 앱 제작



CBS 아나운서들이 2008년과 2009년에 이어 66권의 신·구약 성경 전부를 녹음했다. 현직 아나운서들이 대거 참여해 성경 통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명의 아나운서가 참여한 이번 작업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어져 선보일 예정이다.



김병훈 아나운서부장 새터민에게 우리말 교육



김병훈 아나운서부장이 6월 25일 새터민에게 우리말을 강의했다. 기존의 국립국어원 주관 '새터민 우리말 교육'과 미래나눔재단의 '새터민 우리말 교육 활동'에 tbs '우리말 고운말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재능 기부이다.

상반기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 송정애 아나운서 진행상



2011년 상반기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이 7월 5일 본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우수 프로그램상은 보도제작국의 〈창립 21주년 특집, 교통문화-기분을 지키자〉, 아나운서 우수 진행상은 〈서울 속으로〉의 송정애 아나운서(사진 앞줄 맨 왼쪽)가 수상했다.



8월 조직 개편으로 편성부가 편성국으로 승격



2011년 8월 조직 개편을 맞아 부서 명칭을 편성부에서 편성국(국장: 신요섭)으로 변경하고 새 각오로 하반기 업무를 시작했다.



'생명의 땅...' 진행 지승신 아나운서 부장 진급



평화방송의 여름 특집방송에 아나운서들이 함께했다. 8월 14일 방송된 광복절 특집 〈한-캄친선 아리랑 음악회〉는 김부궁 아나운서가 맡아 7월 중순에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펼쳐진 '아리랑 음악회' 실황을 소개했다. 또한 8월 28일 방송된 연중기획 생명사랑 특집 〈생명의 땅이 내준 기적, 유기농 포도주〉는 지승신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유기농 포도주의 재배 가능성을 모색해본 시간이었다. 지승신 아나운서(사진)는 7월 1일자로 정식 부장 발령을 받았다.



전국 신입사원 해인사 사찰 연수, 정승조 아나운서 방송 시작



지난 8월 전국의 신입 및 신규 경력사원이 4박 5일간 1,080배와 가야산 등반 등 해인사 사찰 연수를 진행했다. 단기 수행을 마치고 신입 정승조 아나운서(사진)가 8월 말부터 라디오 뉴스에 투입되었다. 신선한 목소리에 불교방송 청취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을개편 시 새 프로그램 진행자로 정식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다. 불교방송 가을 개편은 라디오는 예년보다 한 달 늦게, TV는 예년보다 한 달 빨리 10월에 동시에 이루어진다.



회원 동정

가을 학기부터 국민대 정치대학원 강의

신은경(전 KBS)

9월부터 국민대 정치대학원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을 강의한다. 1981년 KBS 공채 8기로 입사, '9시 뉴스 앵커'로 유명했던 신 회원은 지난 5월부터 CTS 기독교TV의 <아름다운 세상>(일 오후 7시 30분~8시)의 MC를 맡아 방송에도 복귀했다.



소설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 출간

손미나(전 KBS, 작가)

소설 <누가 미모자를 그렸나>(웅진 지식하우스) 출간에 맞추어 고국을 방문한 후 내년에 선보일 프랑스 여행기를 쓰기 위해 9월 초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갔다. 1997년 공채 24기로 입사해 10년간 방송한 손 회원은 2007년 <스페인 너는 자유다>를 펴낸 후 <태양의 여행자>,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와 번역서 <엄마에게 가는 길>, <연필 하나>를 발간했다.



30년간 시사주간지 TIME 강의

송재원(전 DBS, 영어 강사)

'타임을 통해 세상을 바로 보고 바른 국어를 바탕으로 바른 영어를 구사하는 대한민국'을 꿈꾸며 종로 YBM어학원에서 <타임>(TIME)을 강의하고 있다. 1967년 동아방송(DBS) 입사, 1975년 동아사태 때 해직된 후 영어 강사로 전업한 송 회원이 올 3월 일간지에 '토종 영어달인'으로 소개되면서 10명 남짓 되던 주말반 수강생이 현재 70명 정도로 늘었다고 한다.



자격증 취득해 코칭 강사로 활동

김충식(전 MBC, 프로 코치)

올 7월 프로 코치 자격증(KPC) 취득 후 한국리더십협회에서 코칭 강사로 활동 중이다. 아나운서국장을 지내고 2005년 퇴직한 후 리더십에 대해 강의하다가 코칭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편 서울 음대와 독일 슈만음대를 졸업하고 록셈부르크교향악단 단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딸 세희 씨(오른쪽)의 첼로 독주회가 8월 8일 서초동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한국어문화 학술강연회 주제 발표

이규향(전 KBS), 박경희(KBS)

(사)한국어문화 창립 기념제184회 학술강연회에서 전·현직 아나운서가 각각 논문을 발표했다.

7월 29일 서울 서초동 한국어문화관에서 '국어교육과 한국어의 발음'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강연회에서 이규향(전 KBS) 회원이 '중급·고급 국어의 필수조건', 박경희(KBS) 회원이 '방송언어의 운율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어린이 대상 여름방송캠프 열어

송지현(전 KBS, 스토리라인, 서진영상 대표)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한옥마을에서 어린이방송단 모집 여름방송캠프를 열었다. 1978년 동아방송(DBS)에서 시작해 방송통폐합 후 KBS를 거쳐 프리랜서로 활약한 송 회원은 2009년부터 스피치 컨설팅과 미디어트레이닝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왔다. 이듬해부터 격주로 주말 어린이 아나운서 체험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300명이 넘는 어린이가 동참했다고 한다.



KBS 2TV '승승장구' 출연

김동건 회장(전 KBS)

7월 12일 방송된 KBS 2TV <승승장구>에 출연했다. 김 회장은 1963년 전영우 고문의 권유로 DBS 1기 아나운서로 입문한 이래 48년간 마이크와 함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편 이날 깜짝 손님으로 출연한 탤런트 정혜선, 유지인, 금보라와 함께 회비를 걷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감동을 주었다.



제1회 정경문화대상 정치발전상 수상

박선영(전 MBC, 자유선진당 의원)

지난 7월 12일, '정경미디어그룹'이 선정한 제1회 2011한국정경문화대상-정치발전 부문 상을 김재운, 김소남, 박보환, 이종혁 의원과 함께 수상했다.

한편 박 의원의 주도로 '독도를 지키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은 오는 10월 15일, 독도에서 <아름다운 우리땅 독도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시니어연합' 강사로 활동 재개

이성화(전 TBC)

6월 17일과 7월 11일 장승백이와 종로 한국시니어연합 강당에서 노인대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노년을 활기차게'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1959년 부산 MBC에서 시작, 1962년 서울 MBC, 1964년 동양방송(TBC)에서 <밤을 잊은 그대에게> 첫 번째 DJ와 <가로수를 누비며> MC로 인기를 끈 이 회원이 30여 년 만에 청중과 만나며 제2의 인생을 활기차게 열고 있다.



남편 사별 후 가족추모문집 출간

정영희(전 MBC)

작년 연말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며 최근 <조재충 장로 회고록-이 새벽의 기도>를 펴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 한 일은 아내를 고교생 때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서 부부로 산 것이다.'로 시작되는 고인이 미리 써둔 유언장을 비롯해 기도문과 특강 내용, 가족의 추모의 글이 실려 있다.

1967년 입사한 정 회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이사했다.



다음에 블로그 개설

최평용(전 KBS, 비즈마루 대표)

손녀에게 할아버지의 아나운서 시절 방송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다음>에 방송 에피소드와 귀농생활의 단상, 부인 김영희 여사의 그림 등으로 꾸민 블로그 <마이크 뒤에 숨겨둔 이야기들>(blog.daum.net/cpumaru4270)을 개설했다.

블로그를 꾸미는데, <말이 인격이다>

(blog.daum.net/iiipaaap) 운영자인 이정부(전 KBS) 회원의 도움을 받았다.

1965년 입사, 1998년 퇴직한 최 회원은 방송할 때도 아마추어무선사(HAM)로 활동하던지 철순에 블로거 대열에 합류한 영원한 신세대이다.



MBC TV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출연

차인태 부회장(전 MBC)

6월 22일과 29일 MBC TV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 2주 연속 출연했다.

차 부회장은 1966년 1월 KBS에 합격해 연수도 받았지만 지방 발령이 나 입사를 포기하고, 군 제대 후 1969년 2월 MBC 1기로 방송을 시작한 사연과 평북 벽동 출생으로 1948년 월남해 경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익힌 사투리 구사 등으로 관심을 모았다.



우리말 다듬기

바른말실천운동시민협의회 제공

- 가십(gossip)-춘평, 소문
- 핫 이슈(hot issue)-관심사, 논점
- 다이어트(diet)-덜 먹기, 식이요법
- 옵션(option)-선택권
- 아우라(Aura)-기품
- 카리스마(charisma)-권위
- 아바타(avatar)-분신
- 싱크탱크(think tank)-참모진, 두뇌집단
-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음성사기전화
- 로드맵(road map)-밈그림, 이행안

'짜장면, 맨날'도 표준어예요!

1988년 표준어 고시 후 첫 개정안-39개 단어 새롭게 인정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짜장면, 먹거리, 맨날' 등이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8월 30일, 그동안 논란이 일던 비표준어를 선별해 2010년에 국어심의회(위원장 남기심)에 상정한 결과 2011년 8월 22일 전체 회의에서 39항목을 표준어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추가된 표준어는 다음과 같다.

- ▷같은 뜻을 가진 복수 표준어 11개
간지럽히다, 남사스럽다, 등물, 맨날, 못자리, 복숭아뼈, 세간살이, 찻싸름하다, 토란대, 허접쓰레기, 흙담
- ▷뜻이나 어감의 차이를 반영한 말 25개
개발새발, ~길래, 나래, 내음, 눈꼬리, 떨구다, 프락, 먹거리, 메꾸다, 손주, 어리숙하다, 연신, 횡하니, 걸리적거리다, 꼬적거리다, 두리뭉실하다, 맨승맨승/맹승맹승, 바둥바둥, 새초롬하다, 아웅다웅, 야멸차다, 오손도손, 찌뿌둥하다, 추근거리다
- ▷널리 쓰이는 표기 형태도 인정한 것 3개
택견, 품새, 짜장면

국립국어원은 1999년 <표준국어대사전>을 발간하고 국민의 언어생활 실태를 꾸준히 점검해왔으며, 표준어를 추가해 개정안을 발표한 것은 1988년 표준어 규정 고시 후 처음이다.

Zoom - in 한국어진흥원 박현우 원장

KBS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 세계화를 선도한다

'KBS한국어능력시험'이 2009년에 이어 올해 재공인됨으로써 의 세계화를 위해 2007년에 설립한 공익적 사내기업이다. 명실공히 대표적인 한국어능력 자격검정으로 자리 잡았다. 한글날을 앞두고 KBS한국어능력시험 준비에 바쁜 KBS한국어 진흥원장 박현우 아나운서를 만나보았다.



1991년 공채 18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2007년 설립한 공익적 사내기업 한국어진흥원 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문: 지난 4년간 어떤 사업을 펼쳐왔는지 궁금합니다.

답: 한국어능력시험이 가장 중요하고요. <KBS한국어능력시험 수험서>, <한글, 아름다운 문장 100선> 같은 서적 출판과 한국어 교육 사업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도 주관합니다. IPTV(맞춤형 인터넷방송)로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TV유치원-파니파니'를 통해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용 프로그램도 방송하고 있지요.

그 밖에 문화부 주최 한글주간 행사도 주관하고, 청소년언어 개선사업, 우리말 가꿈이 추진단도 운영합니다.

문: KBS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답: 모국어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은 전 세계에 KBS 한국어능력시험이 유일합니다. 현재 15개 권역에서 연4회 시험이 치러집니다. '문법·이해·표현·창안·국어문화' 등 5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7등급으로 나누어 1급부터 4+급까지 40% 정도에게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9세부터 80대에 이르는 20만 명의 응시생 중 약 200명이 1급을 받았습니다.

문: 올해 마지막 시험이 10월 9일 한글날에 치러질 텐데, 역시 어려울까요?

답: 평균점수가 65~70점인데요. 수준을 낮추면 변별력이 떨어지겠지요? 응시생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내년부터 초중고생 능력시험 외국인 위한 회화능력시험 시행

2004년 KBS 공채시험에서 시작 공무원 등 80여 기관과 학교서 활용 중

니다. "어렵다. 공부 안 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우리말을 몰랐나? 공부하자!"이지요. 어떤 캠페인보다도 평가도구를 마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 KBS한국어능력시험을 활용하는 기관도 늘었다고요?

답: 우선 2004년부터 KBS공채의 필수조건이 되었고요. 80여 개 기관과 학교 등에서 쓰입니다. 작년부터 군무원, 경찰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반영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치학전문대학원 시험자료로 활용되

는 한편 평생교육원 학점은 행제에도 등록될 예정입니다.

문: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인가요?

답: 올 하반기부터 수행평가라 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시험'도 운영하고, 내년에는 '초중고생을 위한 독서 기반 KBS한국어능력시험', 한국어 회화 능력을 평가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 웬만한 각오 없이는 엄두도 못낼 것 같습니다.

답: 저는 1991년 공채 18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국어국문학 전공자라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연구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빠지도록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사내기업을 운영해보라는 제의를 받았지요. 모국어에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면서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직책을 맡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한국어를 보급하고 전파하며 한국어의 힘을 키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선·후배님들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유혜진 객원기자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 70대 노부부의 'KBS 청춘합창단' 오디션 스토리



뮤지컬 '러브'에 출연한 아내(왼쪽)와 함께 선 필자 조석영 1967년~1998년까지 MBC 아나운서, 비서실, 기획실, 연수실 근무

노래가 좋아 일흔두 살이 되도록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내게 'KBS 2TV <남자의 자격> 52세 이상 노년합창단원 모집' 공고는 눈에 번쩍 뜨이는 뉴스였다. 아내에게 함께 도전해 보자고 설득해 4월 말 지원서를 제출했다. 오디션 열풍을 반영하듯 3,000명이 응모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기다리던

끝에 6월 초순 오디션 참가 통보를 받았다.

중일 비가 내리던 6월 23일, 비만 오면 힘이 솟는 용띠 두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방송국을 찾았다.

아나운서 경험이 있음에도 수많은 TV 카메라에 조금은 놀라면서 대기실로 들어서자, 참가자 즉석 인터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함께 오디션 보시니 기분이 어떠세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부인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문득 대학교 1학년, 그 아름다운 시절이 떠올랐다. 동호회

모임 후 흰 눈으로 뒤덮인 길을 들뜬 채 걷다가 내가 그만 큰 대자로 넘어져 버렸다.

그 때 유난히 통쾌하게 웃던 아가씨가 지금의 아내이다. 그 웃음소리가 좋았고, 그렇게 밝은 사람과 일생을 함께하고 싶었다. 10년 열애 끝에 그 꿈이 이루어져, 옆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하다.

옛이야기를 하다 보니 순식간에 내 마음도 당시의 청년이 된 듯 열정을 담아 조두남 작곡 <산촌>을 불렀다. 아나운서시험 뉴스 낭독 후 처음 겪는 오디션, 이번엔 노래였다.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나와 놀랍고 반갑고 고맙웠다.

아내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나오는 <할머니의 노래>를 선보였다. 아내의 노래는 차라리 처절하고 열정 넘치는 한편의 공연에 가까웠다. 아내에게도 큰 박수가 쏟아졌다. 합격 통지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짐작하실 것이다. 그 과정이 7월 10일 방송되면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유명 연예인(?)이 되었다.

사실 우리 부부는 늘 노래와 함께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성악 전공자로 서울시립가무단 합창대원으로 활동했던 아내 박찬열은 육십이 다

되어 성우학원, 연극교실을 거쳐 연극무대에 오르더니, 69세 때인 2008년에 뮤지컬 <러브>에 출연했고 2010년에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의 할머니役に 캐스팅되어 '스탠바이' 상태인 늦깎이 배우이다. 나는 20년 넘게 양재동 성당 성가대에서 노래하면서 작년부터 남성시니어합창단에 나가며 활동 폭을 늘려가는 중이다.

요즘 매주 화요일에 청춘합창단원 40명과 <남자의 자격> 고정 출연자들이 합창 연습 과정을 녹화하고 있다. 9월 24일 열리는 KBS 주관 제1회 전국민합창대회 출전을 앞두고 열심

히 연습하며 지낸다. 노래를 사랑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만나게 된 것도 큰 즐거움이지만 우리도 젊은이 못지않게 아름답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 '노인들도 뒷집만 지고 있지 말고, 할 수 있거나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 또한 우리들 몫이다.

우리 부부는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행복한 노부부로서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다혈질인 아내가 집안에서 내게 맞서는 당돌함이 없지 않지만, 15년 경력의 연극배우답게 감쪽같이 연기해 내는 한 일단은 부러움을 사게 될 것이다.

'이젠 나도 연극이나 뮤지컬을 해 볼까? 건강한테 못 할 것도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며 빙그레 웃어 본다. <청춘합창단 부부 동반 합격>, 이는 우리 부부의 삶에 아름답게 수놓인 모자이크 한 조각이다.

| 알림 |

<연회비 내신 분> (6월 11일~9월 10일)
김경숙, 이연영, 최운락, 김규은, 이계진, 차인태, 맹관영, 황량
하나은행 358-910003-70805
(사)한국어나운서클럽, 연회비 10만 원

축하합니다

- 손정은 (MBC) 10월 16일(일) 오후 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사업가와 혼인
- 임성민 (전 KBS) 10월 14일(금) 낮 12시 30분, 광장동 워커히호텔에서 서강대에 근무하는 미국인 교수와 혼인
- 정미선 (SBS) 2003년 입사, 2008년 사업가와 혼인 후 7월 5일 득남
- 이정민 (MBC) 2002년 입사, 2008년 사업가와 혼인 후 7월 7일 득남
- 김빛나 (PBC) 2005년 입사, 2008년에 의사와 혼인 후 첫딸에 이어 7월 11일 득남
- 정석문 (SBS) 2001년 입사, 2009년 검사와 혼인 후 6월 16일 득녀

조의를 표합니다

- 손범규 (SBS) 8월 27일 부친상, 이화여대 목동병원 영안실
- 이미선 (KBS) 7월 1일 모친상, 고려대 안산병원 영안실



수도권 유일의 아름다운 해변 골프장!

김포의 명산 문수산, 서해바다, 염하강
산과 바다, 강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 경관의

김포 씨사이드 CC

“그린피 할인 · 샐러리맨 위해 9홀 라운드...
시간대별 그린피 차별화로 승부수 띄웠죠”

김포 씨사이드CC 한달삼 회장



www.gimpocc.co.kr